

국어 범용어미에 대한 연구*

목 지 선**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중 양태 요소를 포함한 ‘-는데, -거든’을 제외한 ‘-고, -든지, -으려고, -게, -도록, -으면’이 모두 후행절 대신 어휘적 의미가 약한 ‘하다’와 결합해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형태가 동일하고 어말어미라는 공통점을 지니나 후행 요소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연결어미, ‘어미 + 하다’ 구성, 종결어미로 쓰이면서 통사·의미적 기능을 달리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범용어미’라 규정하고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등나열의 ‘-고, -든지’는 연결어미와 ‘하다’ 구성 모두 중첩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동일 가치의 명제가 더 나열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나열의 개방성은 내용을 풍성하게 해 표현을 구체화하여 의사소통 효과를 높인다. 선후행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려고, -게, -도록, -으면’은 [-실제성]과 [+주관성]을 공통의미로 가지는데, ‘어미 + 하다’ 구성의 경우는 여기에 [+바람]의 의미가 더해진다. 통사적 제약에 있어 ‘-으려고, -게, -도록’은 연결어미와 ‘하다’ 구성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으면’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또 ‘어미 + 하다’ 구성의 생략에 있어 양태적·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생략이 불가능한 반면 표현 효과에만 기여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632)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범용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 양태적 의미를 드러낸다. 의미 강조나 바람, 동조, 감탄 외에도 상황에 대한 의아함이나 의심, 분노, 짜증 등 다양한 양태적 의미가 나타나며, 화용적 상황에도 제한이 있어 친근한 관계에서의 당부나 인사, 공적인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업무 지시 등에만 한정된 쓰임을 보이는 예도 있다.

주제어 : 범용어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문법화, 양태의미, ‘어미 + 하다’ 구성, 생략 현상

1. 서론

글말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이론 문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과 괴리를 보이기도 하는 반면, 입말은 다소 규범에 어긋나거나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잦긴 하나 이해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입말을 대상으로 언어 변화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 변화 속에 녹아있는 규칙성을 찾으려는 것은 언어의 본모습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도 입말의 연구 가치가 강조되고, 기술 발달에 힘입어 방대한 양의 말뭉치가 구축됨으로써 입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졌다. 이에 입말의 대표적 언어 현상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연구도 일정한 성과를 보이며 질적·양적으로 결과가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연결어미일 때와 종결어미일 때의 의미·화용적 비교, 억양과의 관계 등에 치중되어 온 탓에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종결어미화 과정에 관심을 보인 연구가 몇몇 존재하긴 하나 서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단순화되어 있는 데다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중 양태 요소를 포함한 어미를 제외하면 모두 후행절 대신 어휘적 의미가 빈약한 ‘하다¹⁾’ 등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연결어미로도, ‘하다’ 결합형으로도,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통사, 의미적 특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²⁾ 어말어미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통사적 기능이나 의미에 차이가 있는 동일 형태의 특성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나아가 종결어미화의 원인이나 특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논의의 목적을 둔다.

2. 논의의 전제와 기존 연구의 한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상어미의 개수, 범주, 종류 등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미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목지선(2015)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종결어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고, 종결어미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략’이나 ‘도치’만으로는³⁾ 종결어미화

1) 어휘적 의미가 없고, 연결어미 뒤에 결합 가능한 동사로는 ‘하다’ 외에 ‘되다’도 있으나 이글에서는 ‘하다’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 목지선(2015)에서는 ‘수행동사’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글은 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범용어미’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목지선(2015)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원인을 생략이나 도치로 본 연구로는 유현경(2002), 조민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연결어미 형태를 종결어미화 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일 때와는 다른 의미 기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 기능의 변화는 통사적 변화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통사적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⁴⁾ 목지선(2015)에서는 문장의 끝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는 위치적 조건 외에 통사적, 의미적 조건을 적용하여 종결어미화 현상을 살폈다. 그 결과 ‘-고, -든지, -는데, -거든, -게, -으려고, -도록, -으면’ 등 8개를 종결어미화 한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들 중 양태소를 포함한 ‘-는데’와 ‘-거든’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어미, 즉 ‘-고, -게, -으려고, -도록, -으면, -든지’가 모두 ‘하다’ 등이 결합한 형태로도 활발한 쓰임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어휘적 의미가 빈약한 ‘하다’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는 종결어미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연결어미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는 선후행절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이다. 문장을 단순히 나열만 해도 순서나 문맥에 의해 명제들의 관계가 드러남에도 굳이 연결어미로 문장을 접속하는 것은 명제 간의 의미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결어미 형태가 어휘적 의미가 거의 없는 ‘하다’와 결합해 쓰였다는 것은 더 이상 선후행 명제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 -게, -으려고, -도록, -으면, -든지 + 하다’ 구성⁵⁾에 쓰인 어미는 선행 명제와 관련된 기능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2009), 손옥현·김영주(2009) 등을 들 수 있다.

4) 종결어미화 기준으로 의미변화를 든 연구로는 박재연(1998), 전영진(2001), 정연희(2001), 김유진(2008), 이완정(2013) 등이, 통사변화를 제시한 연구로는 유현경(2003), 박석준(1999) 등이 있다. 그런데 유현경(2003)에서는 ‘-었-’의 결합 차이에 대한 언급에만 그쳤고, 박석준(1999)에서는 ‘-거든, -려고, -는데’만을 대상으로 한데다가 ‘-는데’를 종결어미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5) ‘하다’와 결합하는 연결어미로 ‘-어야, -어도’가 더 있으나 이들은 문장 끝에 놓여

연결어미의 의미·통사적 제약은 선후행절의 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형태의 어미라도 후행요소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기능에 차이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연결어미가 ‘하다’ 구성이나 종결어미가 되면서 선후행 명제의 관계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에서 벗어나면 의미·통사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범용어미들이 후행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어미 + 하다’와 종결어미적 쓰임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⁶⁾ 하여 연결어미와의 차이, ‘하다’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살필 것이다.

3. 범용어미의 통사·의미적 특성

3.1. 연결어미와 ‘어미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용법별로 범용어미⁷⁾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각 어미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보다는 연결어미

서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위치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문장 끝에 놓일 때와 연결어미로 쓰일 때 간의 의미·통사적 변화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연결어미의 의미, 통사적 특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펴기보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서 ‘하다’ 구성, 종결어미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7) 가칭. 권재일(2003)에서 ‘범용어미’라는 용어를 쓴 바 있으나 이는 동일 형태의 종결어미가 한 의향법에 고정된 쓰임을 보이지 않고 평서, 의문, 명령, 청유 등 다양한 의향법을 실현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이므로 이 글의 범용어미와는 다른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의 ‘범용어미’도 대상의 특성을 적절히 드러내는 용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도 용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 때의 기능이나 의미를 기준으로 유사한 대상을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일 때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선후행 명제를 나열시키는 ‘-고’와 ‘-든지’, 그리고 선후행 명제를 논리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시키는 ‘-으려고, -게, -도록, -으면’으로 나누어 범용어미의 특성을 살핀다.

3.1.1. ‘-고, -든지’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고’와 ‘-든지’는 연결어미로 쓰일 때 각각 동질 명제 나열과 선택 가능 명제 나열⁸⁾의 기능을 한다. 이들은 ‘하다’와 결합한 경우에도 단일 구성뿐만 아니라 중첩 구성을 이루어 나열의 기능을 하는가 하면 결합 용언의 제약, 생략현상, 서법 등에서도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동질 명제, 혹은 선택 가능 명제의 대등나열이란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쓰일 때뿐만 아니라 ‘하다’와 결합한 경우에도 중첩구성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⁹⁾. 목지선(2017)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의미적 대등성만 충족되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첩구성이 기본임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단일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된 것도 표면구조만 단일형으로 나타났을 뿐 제시 명제 외에도 대등한 가치를 가진 명제가 더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중첩구성

8) ‘-든지’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 ‘선택 가능항의 나열’ 기능을 한다는 점은 목지선(2017)에서 논의되었다. 목지선(2015)에서는 ‘-든지 하다’가 중첩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긴 했으나 ‘-든지 하다’ 구성 중에서도 단일구성으로 쓰여 대등한 선택 가능항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대등 나열의 ‘-고, -든지’ 외에도 ‘-을 겸, -다가, -으며’ 등도 중첩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나열된 명제 각각에 연결어미나 문법적 요소가 결합되는 것이 기본 형태라 본다. 맨 마지막 명제에 다른 형태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결합된 것은 ‘연결어미/문법형태 + 하-’가 생략된 것이거나, 비슷한 의미의 다른 연결어미로 변형된 구조로 파악한다.

의 변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 ㄱ.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하루 종일 시간이
는 줄을 몰라요.
- ㄱ'.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해요.
- ㄱ". 만나면 밥도 먹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해요.
- ㄴ. 시멘트 찌꺼기를 정밀분석하든지, 완전철거하든지 대대적으로
보수하든지 시급히 손을 써야 한다.
- ㄴ'. 시멘트 찌꺼기를 정밀분석하든지, 완전철거하든지 대대적으로
보수하든지 해야 한다.
- ㄴ". 시멘트 찌꺼기를 정밀분석하든지 (그 외의 다른 것이라도) 해
야 한다.

‘-고, -든지’ 중첩구성 뒤에 후행절이 결합된 경우, 나열된 명제는 후행절 내용의 구체화 혹은 의미 강화의 기능을 한다. (1ㄱ)에서는 ‘시간가는 줄을 몰름’ 정도로 바쁨을 강조하기 위해 바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행위를 ‘-고’로 나열했고 (1ㄴ)에서는 ‘-든지’로 나열된 어떤 상황을 선택하든 후행절 명제가 꼭 실현되어야 함을 나타내므로 ‘-든지’로 나열된 명제는 후행절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하다’가 결합한 (1ㄱ', 1ㄴ')에서는 후행절이 없으므로 ‘-고, -든지’가 후행 명제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는 의미 기능상 동일한 가치를 지닌 명제의 나열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1ㄱ')은 모두 포함된다는 ‘AND’를, (1ㄴ')은 하나가 참이 되면 다른 것들은 거짓이 되는 ‘OR’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1ㄱ", 1ㄴ")는 표면적으로는 단일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되었으나 동일한 가치의 명제가 더 나열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고’나 ‘-든지’ 뒤에 ‘하다’가 와야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의 결합이

자유로우므로 시제나 높임, 서법 등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고 하-’와 ‘-든지 하-’는 생략해도 의미·통사적으로 차이가 없다.

- (2) ㄱ. 친구랑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 ∅)니다/니?/자/여라.
 ㄴ. 이 식당은 저번에 간 식당보다 분위기도 좋(고 하/ ∅)네요./여요?
 ㄷ. 주말에는 (밀린 숙제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하/ ∅)니다/니?/자/여라.
 ㄹ. 이유 없이 좋아야 하겠니? 뭐, 얼굴이 잘생겼(든지 하/ ∅)겠지/겠지?

이처럼 ‘어미 + 하’가 없어도 되는데도 이들을 결합시켜 쓰는 이유는 제시된 명제 외에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듯하다. ‘-고’나 ‘-든지’는 나열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에 따라 아래 (3ㄱ, ㄴ)과 같이 무수한 명제들이 나열될 수 있다.

- (3) ㄱ. 다음엔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 이야기도 하고 하자.
 ㄴ. 책을 읽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 TV를 보든지 한다.

이러한 나열 대상의 개방성은 명령이나 청유, 제안 등의 경우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함을 암시함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화자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보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평서나 의문의 경우는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함의함으로써 전달 내용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하-’에 연결어미가 결합되면 ‘-고’나 ‘-든지’로 나열된 명제들이 후행절의 이유, 조건, 목적, 양보 등의 의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래의 예 (4)처럼 선행 요소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되면 표현 효과가 증대되므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ㄱ.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쓰고 하면 누구나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ㄴ. 체격도 좋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직업도 좋고 하니 인기가 그 정도지.
 ㄷ. 취재원을 다시 만나든지 전화로 취재를 하든지 해서 내 책상에 기사 올려놓으라구.
 ㄹ. 음식이 맛있든지, 음식 값이 싸든지 해야 갈 것이지.

3.1.2. ‘-으려고, -게, -도록, -으면’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의도나 목적, 조건의 의미 기능을 하는 이 연결어미들은 공통적으로 [-실제성]과 [+주관성]을 특성으로 한다. 의도나 목적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 또한 일정 명제의 실현을 위한 바탕으로 주체나 화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실제성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화자나 주체의 선택이나 판단과 밀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으려고, -게, -도록, -으면’과 결합한 명제는 실제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래의 예(5)처럼 부정이 가능하다.

- (5) ㄱ. 친구에게 주려고 정성껏 선물을 골랐다. 그러나 친구에게 주지 못했다.
 ㄴ. 바람이 잘 들어오게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ㄷ. 차가 지나가도록 아이들이 길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차는 지

나가지 못했다.

- ㄹ. 철우는 돈이 있으면 물 쓰듯이 펄펄 쓰고 다닌다. 그러나 돈이 없다.

나열 기능의 ‘-고, -든지’를 제외한 범용어미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 [-실제성], [+주관성]을 의미적 특성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발생한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은 범용어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과나 양보, 대상 제시, 순차, 동시 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하다’와의 결합도 불가능하며, 종결어미화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인과나 양보의 경우 선후행 명제 사이의 개연성이 어미 실현과 아주 밀접한데 개연성에 대한 판단¹⁰⁾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작용한다. 대상 제시의 ‘-는데’¹¹⁾도 ‘-는데’절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대상을 소개하고 후행절에 이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요구 등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어미들은 [+주관성]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이들 어미는 [+실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으려고, -게, -도록, -으면’ 등과 달리 선행절이 부정될 수 없다.¹²⁾

10) 이 글에서는 선후행 명제의 관계에 개연성이 있으면 이유, 개연성이 어긋나면 양보라 본다. 그리고 개연성 판단에는 일반적인 인식이 전제되므로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예) 배가 아프다 (상황/조건) + 병원에 간다 (결과) / 일반적 상황(전제) :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

실현 상황 1) 개연성이 적절한 명제 간의 연결 : 배가 아파서/아프니까 병원에 간다 (인과). 2) 개연성이 어긋난 명제 간의 연결 : 배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양보)

11) 대상제시의 ‘-는데’는 후행절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구를 하기 위해 선행절에서 미리 대상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후행절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결어미화 될 수 없다고 본다.

12) 이들 어미가 가정이나 추측, 일반적 진리나 습관 등을 나타낼 때는 후행절이 부정된다. 가정이나 추측은 그 자체가 [-실제성], [+주관성]을 가지므로 부정이 가능하다.

- (6) ㄱ. 나는 여자 친구가 너무 예뻐서 좋아한다. * 그러나 여자 친구는 예쁘지 않았다.
 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만나기를 꺼린다. * 그러나 사이가 좋았다.
 ㄷ.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을 미루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다.
 ㄹ. 저 분은 이장님이신데 정말 부지런하시다 * 그러나 저 분은 이장님이 아니시다.
 ㅁ. 밥을 먹고 양치질을 했다. * 그러나 밥을 먹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미 + 하다’ 구성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예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으려고 하다’는 ‘주체의 계획이나 의도’, 혹은 ‘조짐, 예상’을 나타낸다¹³⁾. 그리고 ‘-게 하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동’으로 파악하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주체의 의도나 목적 실현’을 나타낸다. ‘-도록 하다’는 ‘-게’와 동일한 사동의 의미 외에 ‘미래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내는 비사동적 의미도 함께 가진다. 그리고 ‘-으면 하다’는 ‘주체의 바람’을 나타낸다.

- (7) ㄱ. 내년부터는 어쨌서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계획,

고, 일반적인 진리나 습관은 선행절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반면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대상은 특정 상황, 한정된 대상에 국한된 것이므로 선행절 전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 ㄱ. 배가 아파도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나 배가 아프지 않았다.

ㄱ'. 배가 아파도 학교에 갔다. * 그러나 배가 아프지 않았다.

ㄴ. 나는 (매일) 저녁을 먹고 공원을 산책한다. 그러나 (오늘은) 저녁을 먹지 않았다.

ㄴ'. 나는 (오늘) 저녁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 그러나 (오늘은) 저녁을 먹지 않았다.

13) 어미 ‘-으려고’의 용법과 그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목지선(2013)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의지

- ㄱ'. 얼른 빨래 건으세요. 비가 오려고 해요. -조짐, 예상
 나. 제가 애들은 그걸 못 보게 할게요. -타인을 대상으로 한 주체의 의도나 목적 실현
 다. 그가 다신 안 찾아오도록 해 주세요. -타인을 대상으로 한 주체의 의도나 목적 실현
 디'. 바쁘시면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의지의 공손한 표현
 리. 미안하지만 난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 -주체의 바람

‘범용어미 + 하다’ 구성은 계획, 조짐, 의도, 바람 등의 의미 기능을 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래], [-실제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계획이나 의지, 의도나 목적 등은 화자나 주체의 바람이 투영된 것인데 개별 어미들의 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이에 해당하므로 [+바람] 또한 공통적인 의미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미 + 하다’ 구성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서법 실현에 대해 살펴보면 ‘-으려고, -게, -도록’은 연결어미 일 때나 ‘하다’와 결합해 쓰일 때나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¹⁴⁾ ‘-으면’은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후행절 서법에 제약이 없었으나 ‘-으면 하다’는 평서와 의문만 가능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결어미 ‘-으면’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후행절에 다양한 서법이 나타날 수 있으나 ‘-으면 하다’는 주체의 바람을 나타내므로 이를 청자에게 요구하거나, 제안 혹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으려고’는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평서와 의문으로만 실현되는데 ‘-으려고 하다’도 이와 동일한 제약을 보이고, 연결어미 ‘-게, -도록’이 서법 제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록 하다’와 ‘-게 하다’도 다양한 서법으로 쓰일 수 있다.

앞서 ‘어미 + 하다’ 구성이 화자나 주어의 바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들은 서법에 따라 바람의 주체나 대상에 차이를 보인다. 평서와 의문 형만 가능한 ‘-으려고 하다’와 ‘-으면 하다’는 주어의 바람만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으면’은 주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바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으려고 하다’는 인칭 제약 때문에 자신만 바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게 하다’와 ‘-도록 하다’는 다양한 서법이 가능하므로 주어의 바람뿐만 아니라 화자의 바람도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 모두 바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게, -으려고, -도록’은 연결어미일 때와 ‘하다’ 구성일 때 모두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으면’은 (8ㄱ, ㄴ)처럼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미래 시제인 ‘-을 것/터-’, ‘-겠-’ 등과 결합이 가능하나 (8ㄱ’, ㄴ’)처럼 ‘하다’ 구성일 때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또 (8ㄷ, ㄷ’)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일 때는 종결어미와 결합해 쓰이나 ‘하다’ 구성에서는 그러한 결합이 불가능하다.

(8) ㄱ. 네 동생이 여기에 올 거면 더 기다리자.

ㄱ’. * 내일 비가 올 거면 합니다.

ㄴ. 오늘 한번 해보고 계속 하겠으면/할 수 있겠으면 계약서 쓰자

ㄴ’. *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겠으면 합니다.

ㄷ. 나에게 1억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직장을 때려질 거야

ㄷ’. * 나에게 1억이 있다면 합니다.

또 ‘-으면’은 연결어미와 ‘하다’ 구성에서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이 가능하긴 하나 의미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 (9)를 보면 연결어미 ‘-았으면’은 과거와 반대되는 사실, 혹은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명제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았으면

하다’는 발화시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제시하는 미래적 의미를 가진다.

- (9) ㄱ.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ㄴ. 내 편지를 받았으면 곧 연락이 올 거야.
 ㄷ. 저, 미안하지만 우산을 좀 빌렸으면 하는데요.
 ㄹ. 잠시 잠깐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으면 했다.

앞서 ‘-고 하-’와 ‘-든지 하-’는 생략될 수 있음을 밝혔는데 ‘-게, -도록, -으려고, -으면’ + ‘하다’ 구성에서는 예(10)에서와 같이 문법적 기능인 사동의 ‘-게 하다’¹⁵⁾와 ‘-도록 하다’, 양태적 의미 기능을 하는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의 경우는 생략이 불가능하다¹⁶⁾.

- (10) ㄱ. 아버지가 아이를 울게 했어요 ≠ 아버지가 아이를 울었어요
 ㄴ. 제가 그 사람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그 사람을 오겠습
 니다.
 ㄷ. 하늘에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오려고 하나 봐요 ≠ 비가 오나
 봐요¹⁷⁾.
 ㄹ. 그 일을 제가 맡으면 합니다 ≠ 그 일을 제가 말합니다.

15) 비의도적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게 되다’의 경우는 ‘-게 되-’의 생략이 가능하다.

(예) ㄱ.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ㄴ.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ㄷ.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으면 뭘 해서 먹고 살 생각이예요?

16) 목지선(2015: 57)에서도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생략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는데 후행 대상을 ‘하다’뿐만 아니라 ‘되다’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 -도록, -게, -든지’와 결합하는 구성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으려고’와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게, -도록’의 생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7) 이는 문법적으로는 적격하나 ‘-으려고 하’가 쓰인 문장과 생략된 문장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적 차이는 ‘-으려고’의 유무에 의한 것이므로 화자의 의도나 조짐을 나타내는 ‘-으려고’는 생략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으려고 하다’의 경우는 어미의 일부인 ‘-고’와 ‘하다’가 결합한 ‘-고 하-’가 생략되어 ‘-으려다, -으려는데, -으려면’ 등으로 쓰이는 예도 보이고, ‘-고’만 생략되어 ‘-으려 하다’로도 쓰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으려’의 생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미 + 하다’의 생략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이나 의지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비사동적 용법의 ‘-도록 하다’는 나열의 ‘-고 하다’, ‘-든지 하다’와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

- (11) ㄱ. 전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합니다.
 ㄴ.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련하려(고 하)는데 다들 와 주실 거지요?
 ㄷ. 그럼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ㄹ. 필요한 서류는 내일 아침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 하다’의 생략이 가능한 ‘-고 하다, -든지 하다, -도록 하다’의 경우 다른 정보가 더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거나 대화 시 공손한 느낌을 더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생략이 불가능한 ‘-게 하다, -도록 하다,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 등은 문법적 기능이나 화자의 심리나 태도 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생략되어도 말맛이나 공손성 등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의미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미 + 하다’는 생략이 가능하고, 문법적 기능이나 화자의 심리, 태도 등을 나타내는 ‘어미 + 하다’ 구성은 생략이 불가능한 것 같다.

3.2. 종결어미의 통사·의미적 특성

범용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쓰일 때의 특징을 검토해 보면 기존의 종결

어미가 수행하는 대표적 기능인 문장을 종결하고, 청자와의 관계에서 화자의 의향을 나타내고, 상대높임법을 드러내는 것¹⁸⁾ 외에 불만, 의심, 감탄, 바람 등 화자의 심리적 태도, 즉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구나, -네, -지’ 등을 양태적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연구가 있는데 종결어미로 쓰이는 범용어미들 또한 기존의 종결어미보다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의미, 혹은 종결어미로는 나타낼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¹⁹⁾. 그러므로 양태적 의미 기능은 종결어미로 쓰이는 범용어미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범용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쓰일 때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태적 의미도 드러내다 보니 기존의 종결어미로 대체하거나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른 어휘나 양태요소 등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리고 글의 첫머리에 놓이지 못하고 선행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만 쓰이거나, 일정 요소가 선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드러나는 등 그 쓰임에 있어 제한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각 어미들이 종결어미로 기능할 때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피되 기존 종결어미와의 대체 가능성 및 간접 화법으로의 전환, 특정 부사 및 연결어미와의 긴밀성 등도 고려했다. 그리고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돕고,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실현되는 서법을 기준으로 이들 어미를 분류하여 살폈다.²⁰⁾

18) 종결어미의 기능과 특성 등에 대해서는 이종희(2004)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19) 양태적 의미의 종결어미를 다룬 연구로 장경희(1985), 이선웅(2001), 박재연(1999, 2003) 등이 있으며 ‘-네, -구나, -지’를 공통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어미들의 양태 기능에 대해서는 박재연(1999), 정연희(2003), 조민하(2009), 최경화(2011), 윤서원(2014) 등에서 다루었다.

20) 양태적 의미가 강해 서법을 판단하기가 애매한 예들이 있긴 하나 기존의 종결어미로의 대체, 간접화법으로 실현될 때 취하는 어미 등을 따져 서법을 나누었다.

3.2.1. 평서형

범용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 평서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고, -게, -으면, -든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정보의 첨가를 통한 의미 강조·강화, 감정 표출, 바람 제시 등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보 첨가를 통한 명제의 강조·강화 기능을 하는 어미로는 ‘-고’와 ‘-게’가 있다. ‘-고’와 ‘-게’가 평서형으로 쓰일 때는 항상 앞선 발화에 대해 정보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첫 발화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자신이나 상대방의 발화에 후행한다. 이들은 앞서 제시된 문장이 화자의 판단이나 심정, 단언을 나타내는지, 화자의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내는지 에 따라 특성을 달리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앞선 문장의 예나 근거·이유가 될 만한 것을 덧붙이거나 앞선 문장을 이유로 해서 발생한 결과를 덧붙이며, ‘-고’만 쓰일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추측이나 짐작의 근거를 덧붙이는데 이때는 ‘-고’뿐만 아니라 ‘-게’도 쓰일 수 있다.

- (12) ㄱ. 자네, 며느리 한번 잘 봤더구만. 성격도 싸싸하고.
 ㄴ. 난 그 여자랑 정말 싸 다 안 맞아. 취향도 정 반대고.
 ㄷ. 이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어. 월급도 너무 적고.

위의 예 (12)를 보면 앞에 화자의 판단이나 심정이 나타나고, ‘-고’를 이용해 판단이나 심정의 이유나 근거, 혹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한다²¹⁾. (12 ㄱ)에서는 성격이 싸싸하다는 점을 덧붙여 며

21) 이런 예들을 도치구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절을 앞으로 옮겨 접속문으로 만들면 비문이 되거나 대등적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도치구문으로는 볼 수 없다.

예) ㄱ. 며느리 한번 잘 봤더구만. 성격도 싸싸하고. → * 성격도 싸싸하고 며느리 한번 잘 봤더구만

ㄴ. 그 여자랑 싸 다 안 맞아. 성격도 정 반대고 → * 성격도 정 반대고 그 여자랑 싸 다 안 맞아

느리를 잘 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12ㄴ)에서는 그 여자와 안 맞는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예를 ‘-고’절로 드러냈다. 그리고 (12ㄷ)도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은 마음이 드는 이유를 ‘-고’절로 제시했다.

이런 용법의 ‘-고’는 아래의 예 (12')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서형 종결어미로 대체가 가능하고 간접화법으로 바꾸었을 때 평서형인 ‘-다고 하다’로 실현되어도 의미나 문법상의 오류가 없으므로 종결어미화의 정도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평서형 종결어미는 첫 문장에 쓰일 수 있음에 반해 ‘-고’는 선행 문장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보조사 ‘도’ 대신 주격인 ‘이/가’가 쓰이면 어색하고, ‘-고’ 대신 다른 종결어미나 간접화법으로 대체하면 앞뒤 두 문장이 단순 나열되기 때문에 뒷문장이 앞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점들로 보아 보조사 ‘-도’와 종결어미 ‘-고’가 긴밀성을 가지고 같이 쓰여야 정보 추가를 통한 의미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 같다.

- (12') ㄱ. 자네 머느리 한번 잘 봤네. 성격도 씩씩해 / *성격이 씩씩하고
 → 머느리 한번 잘 봤다고 했다. 성격도 씩씩하다고 했다.
 ㄴ. 난 그 여자랑 정말 씩 다 안 맞아. 취향도 정 반대야 / *취향이
 정 반대고
 → 그 여자랑 정말 씩 다 안 맞는다고 했다. 성격도 정 반대라고
 했다.
 ㄷ. 이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어. 월급도 너무 적어. / *월급이
 너무 적고
 → 이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다고 했다. 월급도 너무 적다고 했다.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고’는 아래의 예 (13)과 같이 인과적 결과

-
- ㄷ. 이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어. 월급도 너무 적고. → * 월급도 너무 적고
 이 회사에 오래 다니기 싫어

를 덧붙여 제시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니까’ 등 인과관계 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

- (13) ㄱ. 요즘은 진짜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의욕도 안 생기고.
 ㄴ. 진짜, 마누라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소홀해지는 것 같고.
 ㄷ. 개가 하는 사업이 요즘 승승장구야. 사업이 잘 되니까 그 덕에
 애인도 생기고.

다음으로 화자의 추측이나 짐작이 앞선 문장으로 제시되었을 때 추측의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고’와 ‘-게’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서형 종결어미 ‘-게’는 ‘-고’에 비해 제한적 쓰임을 보인다. ‘-게’는 (12ㄱ~ㄷ)처럼 판단, 심경이나 단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아래의 예 (14ㄱ~ㄷ)처럼 화자의 추측이 선행된 경우 이러한 추측의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용법으로만 쓰인다.

- (14) ㄱ.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생전 안 사던 소고기를 다
 사게/사고.
 ㄴ. 장사가 잘 됐나 봐요. 표정이 이렇게 밝으시게/밝으시고.
 ㄷ.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그만두고.

‘-고’와 ‘-게’가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강조하는 기능을 할 때는 기존의 종결어미로 대치가 어렵다. (14’)에서처럼 종결어미 ‘-네’와 대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간접화법으로도 실현될 수도 없다. 이는 이러한 용법으로 쓰이는 ‘-게’와 ‘-고’의 양태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 -고’는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이 선행한 모든 상황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쓰이기 위해

서는 결합한 명제가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화용상의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발생에 대한 화자의 의아함이나 놀라움, 납득하기 어려움 등의 양태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14') ㄱ'.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생전 안 사던 소고기를 다 사네요

→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생전 안 사던 소고기를 다 산다고 했다.

ㄴ'. 장사가 잘 됐나 봐요. 표정이 이렇게 *밝으시네요

→ 장사가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 표정이 이렇게 밝다고 했다.

ㄷ'.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좋은 직장을 * 그만두네

→ 나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존의 종결어미를 이용해 ‘-게’와 ‘-고’의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다른 설명이 덧붙여야만 한다. (14ㄱ)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생전 안 사던 소고기를 사는 걸 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 화자의 의아함이 덧붙여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감정 표출의 기능을 살펴보면 ‘-고’와 ‘-게’를 들 수 있는데 ‘-고’는 긍정적인 놀라움을, ‘-게’는 부정적 감정인 분노, 짜증 등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상호대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양태적 의미 기능의 종결어미 ‘-네, -구나’ 등으로는 대치가 가능하나 간접화법인 ‘-다고 하다’로 바꾸면 단순 서술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탄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다’ 대신에 ‘감탄하다, 놀라워하다, 화를 내다, 분노하다, 짜증내다’ 등의 어휘가 쓰여야 화자의 심리를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다.

- (15) ㄱ. 오늘 날씨 {좋고, * 좋게, 좋구나, 좋네}
 ㄱ'.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다 / 감탄했다 / 놀라워했다.
 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짜증나게, * 짜증나고, 짜증나네}.
 진짜.
 ㄴ'.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다. 진짜 짜증난다고 했다/
 화를 냈다
 ㄷ. 한번만 더 그럼 가만 안 뒤. 에이 씨, {열 받게, * 열 받고, 열
 받네}
 ㄷ'. 한번만 더 그럼 가만 단 둔다고 했다. 열 받는다고 했다/화를
 냈다/짜증을 냈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 표출의 ‘-게’에 대해 사동의 ‘-게 하다’에서 ‘하다’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이 강한 ‘어미 + 하다’ 구성에서는 ‘하다’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게’가 ‘하다’의 생략형이라면 (16 ㄱ, ㄴ)의 성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16 ㄷ, ㄹ)도 ‘하다’가 생략된 형태와 ‘하다’가 결합된 형태의 의미가 동일해야 할 것이나 ‘-게 하다’는 다른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반면에 ‘-게’는 화자 자신이 감정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16) ㄱ. 저 사람들은 항상 나를 짜증나게 한다 → 저 사람들은 항상
 나를 *짜증나게
 ㄴ. 저 멍청이들이 또 사람을 열받게 하네 → 저 멍청이들이 또
 사람을 *열 받게
 ㄷ.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내가 나를) 짜증나게 하네 ≠ (내가)
 짜증나게
 ㄹ. 한번만 더 그럼 가만 안 뒤. 에이 씨, (누군가가 나를) 열 받게
 하네 ≠ (내가) 열 받게

세 번째로 범용어미 중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종결어미 ‘-으면’과 ‘-든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 어미는 화자의 바람, 혹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으면’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든지’는 부정적 상황에서 쓰인다는 차이를 가진다. 즉 ‘-으면’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미래 상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바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반면 ‘-든지’는 현재 혹은 과거 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화자의 바람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불만과 동시에 그런 부정적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람의 ‘-으면’은 기존의 종결어미로는 바꾸어 쓸 수가 없고, ‘-기를 바라다’, ‘-고 싶다’ 등 다른 표현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다. ‘-든지’는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상대방에게 일정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거나 아쉬워하는 ‘-어야지’나, 제안이나 바람의 ‘-지’ 등 화자의 심리, 즉 양태적 의미가 드러나는 어미와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리고 간접화법으로 실현되었을 때 다른 표현의 도움 없이는 그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없다.

- (17) ㄱ. 그를 한 번만 더 만나 {봤으면, 보기를 바라다, 보고 싶다 / *봤다, *봤지, *봤네...}
- ㄴ. 제발,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흐르기를 바라다 / *흘렀다, *흘렀지, *흘렀네...}
- ㄷ. 재는 뭐니? 이런 데 오면서 머리라도 좀 묶고 {오든지, 와야지, 오지...}
- ㄹ. 예휴, 저렇게 머리가 나쁘면 얼굴이라도 좀 {예쁘든지, 예뻐야지, 예쁘지...}

그런데 이들 어미는 ‘하다’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종결

어미화 했다가보다는 종결어미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결어미 + 하다’ 구성보다는 종결어미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쓰이는 상황이나 통사적 특성에서 더 제약적이다. 목지선(2015)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으면 하다’는 대화 상황에 주로 쓰이나 종결어미 ‘-으면’은 (18ㄷ)처럼 독백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염두에 둔 대화상황에서는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18ㄱ)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나 (18ㄴ)처럼 부르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비문이 되며, (18ㄷ)처럼 의문으로도 쓰일 수 없다.

- (18) ㄱ. a.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b. 저는 되도록 토요일 오후에 만났으면 해요 / *만났으면
 ㄴ. 철우야, 나는 네가 저녁에 기름진 건 좀 안 먹었으면 해 /
 *안 먹었으면.
 ㄷ. (혼잣말로) 아, 제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 /
 알아줬으면.
 ㄹ. 너는 뭘 먹었으면 하니? / *먹었으면?

종결어미로 쓰이는 ‘-든지’도 ‘-든지 하다’에 비해 쓰이는 범위가 좁다. 예 (19ㄱ~ㄷ)에서 보듯이 ‘-든지 하다’는 다양한 종결어미와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서법 제약이 없는 반면 종결어미 ‘-든지’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지’²²⁾나 ‘-어야지’와 결합한 ‘하지’, ‘해야지’만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 종결어미적 쓰임을 보이는 ‘-든지’

22) 이러한 종결어미 ‘-지’에 대해 박재연(2006)에서는 행위 양태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안이나 기원의 의미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기원’을 ‘실현되지 않은 사타에 대해 과거에 실현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거나 앞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소망’으로 뜻매김 했다. 이는 이 글에서 제시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에 대한 바람’과 의미적 관련성을 지닌다.

와 ‘-지’가 의미상 유사하기 때문에 ‘-든지’ 대신에 ‘-지’를 쓸 수 있다.

- (19) ㄱ. a. 주말에 일이 생겨서 널 못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하지?
 b. 괜찮아요. 친구한테 부탁하든지 할게요 / *부탁하든지
 ㄴ. 이거 버리기에는 아까운데 네가 쓰든지 할래? / *쓰든지?
 ㄷ. 힘들면 일찍 마치든지 하지요./해야지요 / 마치든지요 = 힘들
 면 일찍 마치지요.
 ㄹ. 저 사람은 누군데 저리 잘난 척이에요? 모르면 말을 말든지
 하지/해야지/ 말든지.
 = 저 사람은 누군데 저리 잘난 척이에요? 모르면 말을 말지²³⁾.

3.2.2. 의문형

범용어미 중 의문형 종결어미로는 순수의문과 반문의 기능을 하는 ‘-고’, 의심을 나타내는 ‘-으려고, -게’, 동조의 의미 기능을 하는 ‘-으려고’를 들 수 있다. ‘-고’는 정보를 요구하는 순수의문과 수사의문에 모두 쓰일 수 있으며 반말 의문형어미 ‘-니, -어’와 대치가 가능하다. 간접화법으로 전환했을 경우도 ‘-냐고 하다’로 실현되며 일정한 선행 요소 없이 발화의 첫 머리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종결어미와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단 수사의문의 경우는 양태적 의미가 얹혀 있으므로 ‘화를 내다, 짜증내다, 기뻐했다’ 등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어를 쓰면 의미 전달이 분명해진다.

- (20) ㄱ. 부모님들은 다들 [안녕하시고, 안녕하시니, 안녕하셔]?

23) 종결어미 ‘-으면’과 ‘-든지’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서에 해당하나 화자의 바람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강해 명령의 서법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부정의 ‘말다’는 명령이나 청유, 제안 등 화자의 의도가 뚜렷한 서법과 결합하는데 종결어미 ‘-으면, -든지’도 ‘말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 ㄱ. 부모님들은 다들 안녕하시냐고 {하셨다/물으셨다/여쭙셨다..}
 ㄴ. 네가 지금 가버리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하니, 해}?
 ㄴ'. 내가 지금 가버리면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했다/물었다/화를
 냈다/짜증을 냈다}

‘-으려고’와 ‘-게’는 수사의문문 기능을 하되 ‘-고’가 의문을 통해 명제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화자의 의심을 나타내며, 일정 부사나 조건 표현과 구조적 긴밀성을 보인다. 이들은 의심의 대상이 서로 다른 데 ‘-으려고’는 행위나 사태 발생 혹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게’는 앞서 제시된 문장이나 ‘-으면’으로 제시된 선행 정보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나타낸다. 즉 ‘-으려고’는 제시하는 명제가 발생했을 리 없음, 혹은 믿을 수 없음을 의문형식을 통해 강조하고, ‘-게’는 선행 문장이나 ‘-으면’절로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는 ‘-게’에서 제시하는 명제의 실현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로 제시하는 명제도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으려고’는 기존의 의문형 종결어미에 사태나 상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겠-’이 결합한 ‘-겠니?, -겠어?’로 바꾸어 쓸 수 있으나, 기존의 양태소나 종결어미 중에는 선행 정보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게’는 다른 어미로 대치가 불가능하다.

- (21) ㄱ. 개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려고, 했겠어, 했겠니?}
 → 개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을 리 없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있겠어, 있겠니?}
 →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ㄷ. 내가 돈이 있었으면 벌써 그 집을 {샀게, *샀겠어, *샀겠니,}?

→ 내가 돈이 있었으면 벌써 그 집을 샀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그 집을 못 샀다.

ㄹ. 그 문제를 다 풀었으면 개가 {천재게, *천재졌어, *천재졌네}?

→ 그 문제를 다 풀었으면 개가 천재일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 풀 수 없으니 개도 천재가 아니다.

그리고 (22)에서처럼 ‘-으려고’의 경우는 ‘설마, 아무려면, 아무리 ~도/~기로서니’ 등의 표현과 결합 시 의심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며, ‘-게’는 항상 조건을 나타내는 ‘-으면’절이나 ‘그러면’ 등의 접속사가 선행되거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ㄱ. 설마 이런 도시에 도깨비가 있으려고?

ㄴ. 아무리 멍청한 서방이기로서니 서방한테 매 드는 년이 있으려고?

ㄷ. 그럼 지금쯤 방 한 칸 안 남기고 싹 쓸어다가 없애버렸게?

ㄹ.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미친놈이게?

의문형 종결어미 ‘-으려고’는 사태 발생의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대한 동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얼마나/오죽 ~으면’이나 ‘오죽하면’이 선행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의문형 ‘-을까’나 ‘-겠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의심의 ‘-으려고’가 의문을 통해 명제를 부정한다면 동조의 ‘-으려고’는 의문을 통해 동조와 이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3) ㄱ. 오죽 멍청했으면 그런 문제를 {틀렸으려고, 틀렸을까, 틀렸겠네}?

ㄴ. 얼마나 뛰었으면 숨이 가파서 {쓰러졌으려고, 쓰러졌을까, 쓰러졌겠네}?

ㄷ. 오죽하면 그 착한 사람이 화를 다 {냈으려고, 냈을까, 냈겠네}?

3.2.3. 명령형

명령형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범용어미에는 ‘-고’와 ‘-도록’이 있는데²⁴⁾ 이들은 기존의 종결어미로 대치가 가능하며, 간접화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물론 이들도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된 다른 어미들과 마찬가지로 서법 실현의 기능 외에 양태적 의미를 드러낸다. 다만 양태적 의미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종결어미로 대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어휘적 도움을 받으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고’의 경우는 (24ㄱ, ㄱ′)과 같이 일반적인 명령의 용법으로도 쓰이지만 그 외에 당부, 인사, 챙김 등으로 많이 쓰인다. 이는 사적인 관계에서 다소 친근한 느낌을 주므로 (24ㄴ′)에서처럼 간접 화법으로 나타낼 때는 ‘명령하다, 지시하다’는 어색하고, ‘좀, 제발’ 등 부탁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그러나 (24ㄷ)에서처럼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당장’ 등의 부사나 보조용언 ‘-어 버리다’가 같이 쓰이는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다.

- (24) ㄱ. 너는 제발 어깨 좀 {펴고, 펴라, 펴}. 그래, 잘 했어.
 ㄱ′. 나에게 제발 어깨 좀 펴{라고 했다/말했다/시켰다/명령했다}.
 그리고 어깨를 펴자 잘 했다고 했다.
 ㄴ. 조심해서 가라. 다음에 또 {놀러오고, 놀러오너라, 놀러와}
 ㄴ′. 나에게 조심해서 가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오{라고
 했다/말했다/*명령했다/*지시했다}
 ㄷ. 이제부터는 제발 좀 울지 {말고, 말아라, 마}
 ㄷ′. 볼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버리고, 나가버려라, 나가버려}

24) 이들 어미가 청유형으로도 실현될 수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명령의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령형을 대표적인 서법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 ‘-도록’의 경우는 업무 지시 등 공식적 상황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부탁의 의미 기능은 약하고, 간단명료하고 약간의 고압적인 느낌을 풍기는 대화 상황에 어울리므로 (25)처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명령하다, 지시하다’ 등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사적인 관계에서 친근함을 나타내는 부르는 말 ‘~야, ~아’와는 결합이 어색하고, ‘-고’에는 ‘요’가 결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도록’에는 ‘요’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 (25) ㄱ. 내일은 전원 9시까지 {집합하도록, 해라, 해}
- ㄱ'. 내일은 전원 9시까지 집합하(라고 했다/말했다/명령했다/지시했다)
- ㄴ. 여러분들은 롤 샌드위치는 촉촉해야 잘 말린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 ㄴ'. 영희야, 롤 샌드위치는 촉촉해야 잘 말린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 ㄷ. 마지막으로 클린징 후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시고/하시고요.
- ㄷ'. 마지막으로 클린징 후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도록/*하도록요

명령형 종결어미로 쓰이는 ‘-도록’도 ‘하다’의 복원이 가능하긴 하나 2인칭 명령으로만 고정되어 쓰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화에 주로 쓰이는 등 ‘-도록 하다’에 비해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고 통사적 제약도 많다. 명령형 종결어미 ‘-도록’은 비사동 용법의 ‘-도록’이 종결어미화 된 것으로 보인다.²⁵⁾

- (26) ㄱ. 영희를 쉬도록 하세요 : 영희를 쉬도록 만들다(○) → * 영희를

25) 앞선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는 ‘어미 + 하다’의 생략 및 ‘하다’의 생략도 불가능하므로 사동의 의미 기능을 하는 ‘-도록’은 종결어미화되기 어렵다. 그런데 주어의 계획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는 경우는 ‘-도록 하다’는 물론이고 ‘하다’의 생략도 가능하다.

쉬도록

- 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다(○) → *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 ㄷ. 그 사람을 속히 해고하(도록 하)세요 : 그 사람이 해고하도록 만들다(×) → 그 사람을 해고하도록
- ㄹ. 불편한 친구들을 돕(도록 하)여라 : 친구들이 돕도록 만들다(×) → 불편한 친구들을 돕도록

위의 예 (26ㄱ~ㄹ)을 통해 볼 때 사동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게 하다’는 종결어미가 될 수 없는 반면(26ㄱ, ㄴ), 비사동적 용법의 ‘-게 하다’는 ‘-게 하다’는 물론 ‘하다’도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26ㄷ, ㄹ)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4. 결론

어미의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 기능은 선행 요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라도 후행 요소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의미·통사적 특징이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연결어미로도, ‘하다’ 결합형으로도,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것을 범용 어말어미라 규정하고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미·통사적인 특성을 용법별로 살피는 한편, 동일형태의 어미가 결합하는 후행 요소의 유무,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이들 사이에 의미나 기능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선 나열의 기능을 하는 ‘-고, -든지’는 연결어미로 쓰일 때나 ‘하다’

와 결합해 쓰일 때나 중첩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닌 명제가 더 나열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나열의 개방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함으로써 표현을 구체화 시키고, 전달 효과를 높이는 화용적 기능도 한다.

선후행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으려고, -게, -도록, -으면’의 경우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실제성]과 [+주관성]을 공통적 의미 기능으로 가지며, ‘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는 여기에 [+바람]의 의미가 더해진다. 그리고 ‘-으려고, -게, -도록’은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 서법, 선어말어미 제약, 주어 제약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으면’은 통사적 제약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화자의 의도나 계획, 바람 등의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나 문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록 하다, -게 하다’에서는 ‘어미 + 하다’의 생략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문법적 기능과 상관없고 양태적 의미보다는 표현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나열의 ‘-고 하다, -든지 하다’나 공손하게 표현하는 ‘-도록 하다’ 등은 ‘어미 + 하다’의 생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들 범용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감정 등 양태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평서형 어미들은 정보 첨가를 통한 의미 강조, 화자의 감정, 바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고, -게’을 경우 앞선 화자의 추측이나 예상에 대한 근거 첨가의 기능을 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발생이나 상황에 대한 의아함을, 감정 표출의 기능을 할 때는 긍정적인 감탄이나 부정적인 분노, 짜증 등 화자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경우도 양태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으면’에는 화자가 소망하고 기원하는 긍정적인 바람이, ‘-든지’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불만 표출과 동시에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의문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고’는 순수의문과 수사의문으로 쓰여 기존의 의문형어미와 비슷한 기능을 하나 ‘-으려고’와 ‘-게’는 의심이나 동조 등 앞서 제시된 정보의 진위에 대한 화자의 수용 태도를 드러낸다. 명령의 기능을 하는 ‘-고’나 ‘-도록’도 기존의 명령형 종결어미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인 명령의 기능 외에 ‘-고’는 당부나 인사 등 사적인 관계에서 친근한 안부를 전하는 용법으로 많이 쓰이고 ‘-도록’은 업무 지시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등 출현환경이 다소 한정적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고영진,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 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1997.
- 구현정, 「현대국어의 조건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권재일, 「문법 형태소의 성격」,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_____, 『구어 한국어 의향법 실현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미경, 「한국어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정,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승곤, 「가정형어미 ‘-면’과 ‘-거든’에 대하여」, 『인문과학논총』 12, 건국대인문과학 연구소, 1979, 27~42면.
- _____, 「선택형어미 ‘-거나’와 ‘-든지’의 화용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 연세대 한국어학당, 1979, 9~27면.
- 김유진, 「한국어 문법 항목 배열 연구 - 종결기능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종록, 「접속어미 ‘-러, -려(고), -고자, -도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진수, 「국어 접속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김형배, 「현대국어의 선택 어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목지선, 「어미 ‘-으려고’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2013, 41~67면.
- _____, 「국어 입말의 비격식체 종결어미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연결어미 ‘-든지’의 통사·의미적 특성」, 『어문학』 136, 한국어문학회, 2017, 35~62면.
- 박석준,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체계화에 대한 몇 가지 - 목록 설정과 관련하여 ‘-거든’, ‘-려고’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7,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225~244면.
- 박종갑,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 3」,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0, 93~111면.
- 박재연,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9, 199~225면.
- _____,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249~275면.
- _____,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56, 태학사, 2006.
- 손옥현·김영주,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2009, 49~71면.
- 유현경,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한글학회, 2003, 123~148면.
- 윤평현,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2005.
- 이선웅, 「국어의 양태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317~339면.
- 이완정,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 교육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2000.
- 이종희,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규홍, 「국어 덧물음월의 담화론적 연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1999, 79~111면.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장경희, 『현대 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6.
- 전영진, 「국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민하, 「연결어미의 기능 변화에 나타난 억양의 문법표지성」,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93~125면.
- 한 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사, 1991.
- 황병순, 「부정 접속 복문과 한정 접속 복문」,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Two or More Functional Endings in Korean

Mok, Ji-seon*

In Korean, there are total 8 endings that were used as connective ending and became final endings, including ‘-는데, -거든, -고, -든지, -으려고, -게, -도록, and -으면’. Excluding ‘-는데 and -거든’ that contains modal markers in these 8 endings, ‘-고, -든지, -으려고, -게, -도록 and -으면’ can be combined with endings with no lexical meaning such as ‘하다’ in place of following clause.

Even the endings in identical form display different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presence and type of following element. This study defines the endings in identical form that are used as the connective ending, ‘ending + 하다’ form, or final ending widely as two or more functional final endings. In addition, it developed the discuss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when the two or more functional final endings are used in ‘ending + 하다’ structure or as final endings. Based on the discussion, ‘-고, -든지’ were based on reapplication construction when used as connective endings or combined with ‘하다’. Also, this means that more propositions with identical value can be listed. The openness of this list makes the contents richer and more diverse to specify expressions and improve communication effects.

‘-으려고, -게, -도록, -으면’, which show the logical relationship of antecedent/following clauses, can have [-reality]와 [+subjectivity] in common when used as connective endings. Also, the meaning of [+wish] is added when used in ‘ending + 하다’ structure. In terms of syntactic constraints, ‘-으려고, -게, -도록’ do not show difference when used in connective ending + ‘하다’ structure, but showed a huge difference in case of ‘-으면’

* Gyoungsang University

In addition, ‘ending + 하다’ can’t be omitted in ‘-어려고 하다, -으면 하다’ that have modal meaning or ‘-도록 하다, -게 하다’, which are causatives with grammatical function. Meanwhile, clauses related to expressive effective, such as ‘-고 하다, -든지 하다, -도록 하다’, rather than grammatical or modal melding, can be omitted.

Lastly,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wo or more functional final endings when they are used as final endings. They strongly show the modal meaning, such as the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 or emotions. Declarative endings provide the functions of emphasizing meaning or expressing speaker’s motions or wishes through the addition of information. When ‘-고, -게’, added with basis for speaker’s prediction or expectation, emphasize meaning, it expresses suspicion about unusual event or situation. Also, speaker’s psychology or emotion, such as positive appreciation, or negative anger or irritation, is displayed in the expression or emotion. Modal meaning is strongly displayed when expressing speaker’s wish. ‘-으면’ contains speaker’s positive wish or hope, and ‘-든지’ expresses dissatisfaction against negative reality, while displaying the hope to improve the situation.

When functioning as a question, ‘-고’ plays a similar function as the existing interrogative endings, but ‘-으려고’ and ‘-게’ strongly show the model meaning, such as suspicion or agreement. This displays the speaker’s accepting attitude about the authenticity of previously presented information. ‘-고’ or ‘-도록’ isn’t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mperative final endings, but aside from the general imperative function, ‘-고’ is frequently used as the way to extend greetings in friendly ways in personal relationships. Also, ‘-도록’ sounds more natural in official situations such as work orders or against the public, so its use is rather limited.

Keywords : two or more functio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functioning as final endings, grammaticalization, modal meaning, ending + ‘하다’ structure, ellipsis

목지선

전자우편 : 74mogi@hanmail.net

논문 접수일 : 2018. 4. 15.

심사 완료일 : 2018. 5. 4.

게재 완료일 : 2018. 5. 14.